

신춘문예 동시의 문학 교육적 의미*

Literary and Educational Meanings of Poems for Children :
The Annual Literary Contest of the Dongah-ilbo and the Chosun-ilbo

이 민 재**

Lee, Min Jai

정 대 련***

Chung, Dae Ryun

ABSTRACT

Using literary and educational points of view, this study examined the prizewinning poems for children in the Annual Literary Contest sponsored by the Dongah-ilbo and the Chosun-ilbo between the 1970s and 2001.

The average age of both male and female writers increased over time, 82% were college graduates, and 54% were educators. All of the poems referred to nature in some ways, either as the major theme(42%) or in passing reference to some aspect of nature(58%). Onomatopoeic words were used in 71% of the poems; similes and metaphors were expressed in 13% and 51%, respectively; 58% were written from a mediator's point of view; 59% were in the present tense; 78% of the space elements were fixed; and 98% were written in free verse.

In conclusion, the poems for children of the Annual Literary Contest should be used in literary education with guidelines for the appreciation, creation, and criticism of poems for children.

Key Words : 동시(poems for children), 신춘문예(literary contest), 교육(education)

* 본 논문은 2001년도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BK21 아동학 연구단 연구원

***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I. 서론

동시는 아동을 주요 독자로서 하는 시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시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정신생활이나 자연, 사회의 여러 현상에서 느낀 감동 및 생각을 일정한 울림·리듬·하모니를 가진 운문(韻文)으로 즉 운율을 지닌 간결한 언어로 나타낸 문학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동시는 그 본질상 아동다운 심리와 정서로 어른과 아동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쓰여진 시(이재철, 1989)로서,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소박하고 단순한 사상과 감정을 담고 있다. 동시가 시와 다른 점은 바로 '아동답다'는 조건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근간에 들어 동시 작품이 어른 작가에 의해서 창작되고 성인 비평가들에 의해서 비평됨으로써 아동에 대한 호소력이나 흥미보다는 작품 자체의 문학성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다(최운식, 1988). 작가의 유희 만족에 그쳐 아동의 유희세계를 그리거나 어른의 시를 흉내낸 동시가 아동으로 하여금 동시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써, 동시 문학의 주 독자인 아동이 동시 작품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즐겨 읽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아동 정서와 사고의 발달적 특징을 고려한 문학성 높은 동시를 발굴하고 제공함으로써 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하고, 아동이 동시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공감하며 즐길 수 있도록(신익호, 1979), 동시의 문학적 가치를 펼쳐 보이며 내재적인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문학교육(오재길, 1995)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아동을 위한 동시 작품으로서, 신년 첫 날을 여는 문학 작품인 신춘문에 동시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훌륭한 동시 작품은 기성 문인들의 동시 작품집을 통해 또는 교과서에 실린 동시에서 제공되기도 하며, 때로는 아동이 직접 쓴 아동시에서 아동의 세계를 표현하는 좋은 동시가 발견되기도 한다. 한편 신인 문학가들의 등용문인 신춘문예의 당선작이나 수상 작품은 수백 수천의 새로운 작품 중 엄선되고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문인 중 다수가 현대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문인 계층을 형성하며 사회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신춘문예 동시 당선작의 문학적성을 기초로 하여 문학 교육의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춘문예는 6대 일간지를 비롯하여 중·소신문 및 잡지마다 실시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특히 국내 최대 일간지로서 권위를 지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신춘문예 동시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신춘문예 작품 분석을 통해, 동시의 문학적 요소를 검토하고, 독자인 아동을 위한 동시 작품 선정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차후 문학교육에 필요한, 구체적으로 동시 창작 및 동시 감상 또는 평가에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춘문예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신춘문예 소설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로서 신춘문예 당선 소설의 문학적·사회적인 위치 반영과 문제점 등을 다루고 있다. 기타 신춘문예 제도나 시·회곡·시조 당선 작품, 그리고 신춘문예 사조에 관한 연구들이 관련 연구의 주를 이루고 있다.

신춘문예 소설 작품에 관한 연구로는 신춘문

예 소설에 나타난 어휘의 사용 빈도를 기초로 하여 문학 작품의 비평과 분석에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지향하는 김한식(1997), 문종욱(1995)의 연구가 있다. 그들은 소설에 나타난 어휘 분석이 언어 사회 집단의 현실을 반영하는 가장 빠르고 적절한 교육 효과적 가치를 지닌다고 한다. 신춘문에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신문이 기업에 의해 주관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관한 연구가 있다. 문학 작품의 사회적 선택 요인, 제도를 둘러싼 외적 환경이 신춘문에 미치는 영향(김윤식, 1997; 류보선, 1999; 전영태, 1997; 정호웅, 1998; 현길언, 1996; 황병하, 1992), 또는 신춘문에 당선 소설의 사회학적 의미(노상규, 1990), 그리고 신춘문에 단편 소설에 나타난 Sports 문학(이병곤, 1992)에 관한 연구 등은 신춘문에 당선 작품의 문학적·사회적인 위치반영과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신춘문에 시에 관한 연구(김윤식, 1989; 김희철, 1988; 이경수, 2000; 이승원, 1999; 이승훈, 1989; 이탄, 1989; 진이정, 1991)는 당해 년도의 신춘문에 당선 시들을 문학적·사회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의 경향과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신춘문에 시의 공통적인 문제점들로 자연친화적이며, 심미중심적인 신춘문에적 상투성을 지적하고, 신춘문에에 응모하는 시들이 깊이 없는 어휘나 기교에 의존함으로써 언어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인들의 시에 대한 자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배봉기(1998)는 신춘문에 희곡이 문학과 연극판 어디에서도 살아남기 힘든 현실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서태수(1998)는 1931년부터 1989까지 신춘문에 시조를 대상으로 당선자의 연령과 작품의 주제 의

식 그리고 심사 위원의 인원수 등을 연대별로 정리하고 광복 전후로 나누어 비교하고 있다.

또한 박인우(1990), 배문성(1991), 신덕룡(1990), 이명원(2000), 정규웅(1989), 현길언(1996), 홍신선(1996) 등은 신문학 초창기부터 문단 데뷔의 중요한 관문 역할을 담당해 온 신춘문제가 긴 연륜을 쌓는 동안 '가장 화려한 문단 등용문'으로 각광을 받으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반면, 점차 신춘문에 초창기의 전문적인 문인 배출의 순수한 목적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을 모색하고 있다. 한 예로 정규웅은 신춘문에 목적의 퇴색 원인을 상급으로 인한 엉뚱한 사행심과 당선자에 대한 지나친 집중 조명, 심사 방법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신춘문에 작품들의 지나친 유형화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신춘문예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단편 소설에 관련된 것으로서, 시조·희곡 등 소설 이외의 작품들에 대한 연구가 희박하다. 더구나 신춘문예 동시 작품에 대한 연구는 어떠한 측면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신춘문예 동시가 지니는 문학적 가치를 밝히고 문학 교육적 의미를 체계화함으로써, 신춘문예 동시를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고, 신춘문예 동시의 문학사적 위상을 정립하는 데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새로운 동시 작품의 창구인 신춘문예 동시가 지니는 가치를 밝히는 최초의 연구로서, 자칫 유실될 수 있는 역사적 동시를 발굴하고 재해석한 본 연구는 문학의 한 장르인 동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차후 동시의 주제·미학·교육성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동시 문학사는 통시적으로 개항기 시대 및 식민지 시대, 분단 시대의 문학으로 구분된다(강만길, 1994). 1910년을 전후한 광복 이전의 개항기 시대는 최남선과 이광수의 2인 문단 시대였으며, 일본 제국주의 국권 침탈로 인한 침체기를 넘어, 1920년대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활발해진 신문과 언론의 활동과 1922년 소파 방정환의 어린이날 제정 및 아동잡지인 「어린이」의 출간 등으로 동요황금시대를 맞이한다.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과 “아동의 교육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는 아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서로 맞물려, 신문사의 신춘문예 동시 부문 현상 모집의 배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신춘문예의 효시는 동아일보를 비롯한 몇몇 신문들이 독자들로부터 수시로 여러 가지 형태의 글들을 모집하여 그 중 잘된 것을 뽑아 신문에 게재하던 데서 비롯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신춘문예는 1925년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 겸 작가였던 홍명희의 발안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신춘문예는 문단 등용문이라는 세계 유일의 한국적 특징(곽인우, 1990)을 지닌다.

1925년 최초 신춘문예의 모집 부문은 문예·부인·소년의 세 부문으로써, 문예 부문은 단편소설과 신시, 부인 부문은 가정 소설, 소년 부문은 동화극과 가극, 동요 등을 포함하여, 전체 7개 영역으로 신춘문예의 정형화를 이루었다. 1932년에는 동아일보 신춘문예 모집 부문이 단편소설, 희곡, 시가, 아동 작품, 동화의 5개 부문으로 나뉘어, 그 중 시가 부문은 신시·창가·시조·동요로, 아동 작품은 작문·습자·자유화 부문으로 모집 범위가 전체 20개 영역으로 크게 확대된다. 1935년에는 실화와 콩트, 만화, 전설 그리고 학생 논문의 5개

부문이 첨가되었으며, 시가 부문에서 모집하였던 동요가 아동물로 옮겨지고 민요와 한시가 추가되었다. 1941년부터는 일제에 의한 폐간으로 신문 발행이 중단되어 신춘문예가 실행되지 못하였으며, 1946년부터 1952년까지는 전쟁으로 신춘문예를 실시하지 않다가, 1953년 15회를 기점으로 신춘문예가 다시 부활되었다. 1950년대 후반에는 모집 부문이 소설, 시, 시조, 동화, 동요, 작문 등으로 축소되었고, 1960년대에는 문학·미술·음악·영화 부문의 평론과 시나리오가 첨가되었다.

최초의 신춘문예 당선 동시 작품은 1958년 요애이의 ‘종이배’로, 논문·단편소설·시·시조·희곡·동화 부문과 함께 당선되었다. 이후 1959년부터 1964년까지는 동시 부문의 당선작이 없었으나, 1965년 현이숙의 ‘인사’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꾸준히 새로운 동시들이 당선되었으며, 1974년과 1990년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신문에 동시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신춘문예는 1927년부터 학생 작품으로 시가·수필·콩트·회화물, 아동 작품으로 동요·일기·동화·자유화, 일반 작품으로 단편소설·전설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작되었다. 1928년에는 현상 논문 부문이 신춘문예에 첨가되었고, 1930년대에 들어서서는 희곡과 평론 유행가 부문이 첨가되고 학생·아동·일반의 분류가 없어졌으며, 1930년대 후반에는 시조, 단편소설, 희곡, 시, 동화, 동요, 평론 등 7개 부문으로 간소화되었다.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초까지는 조선일보 역시 전쟁 등의 이유로 신춘문예를 중단하였으나, 1960년대에 들어서 동시와 시나리오 부문이 추가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춘문예 작품이 공모되고 있다.

조선일보에서 최초 신춘문예 동시가 등장한 것은 1957년으로 김성환의 '아이와 우체통'이라는 작품이다. 다음으로 1961년 신현득의 '산', 1964년 이범노의 '산골 이발소' 등의 동시가 신춘문예에 당선되었으며, 이후 1970년대부터 1972년까지 당선작이 없었던 것을 제외하고 1973년부터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동시 당선작이 배출되고 있다.

동아·조선일보 외에 전국 각 신문사마다 신춘문예 작품을 모집하며, 신춘문예를 통하여 해마다 많은 신인과 작품이 배출되고 있다. 최근 몇몇 중앙의 일간지에서는 시, 소설, 희곡, 평론, 시조, 동시, 동화, 시나리오 등을 포함한 11개 부문으로까지 확대하여 신춘문예 작품을 모집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재의 작품이 출품되고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연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신춘문예에 당선된 동시 작품 및 작가 등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 문헌이나 선행 연구 자료가 전혀 없는 관계로 인하여, 연구자는 연구의 일차 자료를 직접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국회도서관의 신문자료실 및 마이크로폼 자료실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독자 정보센터 등에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신춘문예 당선 작품 및 심사평, 당선소감 등 신문에 게재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총 59편이다. 연구 대상 59편은 신춘문예에 동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1970년 이후부터 2001년 현재까지의 작품들을 포함한다. 사실 1925년 동아일보에서 그리고 1927년 조선일보에서 각각 '신춘현상문예'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신춘문예 모집은 일제 치하의 문화 정책 및 2차 대전 발발과 종식, 광복 및 6.25전쟁 등으로 이어지는 격동기의 사회 문화적 영향으로 인하여 변동을 계속해 왔다. 따라서 신문사의 사정에 따라 모집 유무의 변동이 심하

고 또 일부 심사평, 당선소감 등이 게재되지 않은 것도 있었던 바, 연구자가 확인하여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작품은 동아일보의 30편과 조선일보의 29편이었다.

2. 분석 기준

연구 대상 동시의 분석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우선 기존의 분석기준들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동시 작품 분석의 기준은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어 왔다. 미학·주제·작가·소재·제재·기능·시어·자연친화적 소재·이미지의 직접성·리듬의 변화와 시각화·의성, 의태어의 활용과 의인법의 효과·운율·표현 방법(김성기, 1995; 김희자, 1998; 양향자, 1998; 이기옥, 1997; 이병식, 1995; 진선희, 1994)등, 연구자에 따라 2-5가지의 분석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춘문예 동시의 문학 교육적 의의를 밝히려는 의도에 따라, 기존 연구들의 분석 기준들을 통합·포괄하여, 작가 및 주제와 기능의 측면과 미학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제 기준에 맞추어, 총 59

편의 신춘문에 동시에 나타난 제 특성들의 빈도(백분율)를 산출하고, 이와 관련된 문학적 의미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 의도에 따라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연구자는 첫째로 신춘문에 동시 작가의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신춘문에 동시에 나타난 주제를 자연친화, 놀이의 즐거움, 꿈·희망·소

망, 애정·그리움, 기타 측면에서, 그리고 신춘문에 동시의 기능을 심미적, 교훈적, 현실비판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로는 신춘문에 동시의 미학적 특징을 의성·의태어의 사용과 수사법의 활용을 포함하는 표현적 요소, 동시의 자아와 시점에 따른 언술적 요소, 그리고 정형시와 자유시를 포함하는 형식적인 요소 등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Ⅲ. 결과 및 해석

1. 신춘문에 동시의 작가 및 주제와 기능

문학작품을 작가라고 하는 모체에서 생산된 정서적이고 사상적 산물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의 문학작품을 이해하고자 할 때 작가가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신춘문에 동시의 작가에 대해 신문에 게재된 사항들을 토대로 하여 성별, 연령, 최종 학력 그리고 직업의 4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당선 작가들의 약력에 대한 분석은 동시 작품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신춘문에 당선 작가들은 <표 1>과 같이 남성이 59% 여성이 4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약 18%정도 여성 당선자에 비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시대별로 보면 여성의 비율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은 이와는 반대로 계속하여 차츰 감소하고 있다.

신춘문에 동시 당선 작가들의 당선 당시 연령을 시대, 성별을 각각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동아일보에서는 1985년, 조

<표 1> 작가의 성별 (명, %)

년도	70-79	80-89	90-01	계
남	14(24%)	12(20%)	9(15%)	35(59%)
여	2(3%)	8(14%)	14(24%)	24(41%)

선일보에서는 1978년과 1990년, 작가의 연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대상 작가는 총 56명이다. 우선 작가의 연령은 30대가 전체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50대 연령은 1995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당선된 여류작가 1명으로 약 2%에 해당한다. 성별에 따른 당선 작가의 비율은 남성이 57%, 여성은 43%로서, 남성이 약 14%정도 여성에 비해 많은 바, 전체적으로 30대에 남녀 모두 가장 많이 나타날 뿐 아니라

<표 2> 연령·성별·시대 (명, %)

연령 성별	20대		30대		40대		50대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70-79	4	2	9	0	0	0	0	0	15(27%)
80-89	5	1	5	5	1	2	0	0	19(34%)
90-99	0	3	4	7	4	3	0	1	22(39%)
계	9(16%)	6(11%)	18(32%)	12(21%)	5(9%)	5(9%)	0	1(2%)	56(100%)

남녀 비율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20대와 30대 각각 남녀의 비율을 보면 60%, 40%의 비율로 남성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작가들의 등단 연령은 남성의 경우 20대에서 40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50대까지 연장되어 있음이 눈에 띈다.

신춘문예 동시 작가의 최종 학력(표3 참조)은 신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작가 9인(동아일보 1977, 1991, 1994, 2000년; 조선일보 1978, 1982, 1985, 1997, 2001년)을 제외한 전체 50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춘문예에 당선된 작가의 학력은 주로 대졸(재학, 졸업포함)로써, 남성이 50% 여성은 32%로, 전체의 약 82%가 대학학력을 가지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남성이 8% 여성이 6%로 그 비율이 비슷하다.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의 경우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2%로 나타난다.

〈표 3〉 작가의 최종 학력 (명, %)

최종학력	고졸		대졸 (재학, 중퇴포함)		대학원졸 (재학포함)		계
	남	여	남	여	남	여	
성별							50(100%)
인원(%)	4(8%)	3(6%)	25(50%)	16(32%)	1(2%)	1(2%)	

신춘문예 동시 작가들의 당선 당시 직업은 직업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16인을 제외한 43인의 직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당선 작가들의 직업을 보면(표4 참조), 학교 교사가 전체의 약 53%이다. 다음으로는 학생, 강사 순으로 각각 전체 인원의 약 21%, 12%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의 경우는 2인의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9인이 모두 대학생 이상이다.

주제란 작품 속에서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중심 사상이므로, 시의 주제는 한 편의 시 작품

속에서 형상화된 중심 사상이자, 하나의 의미이다(박화목, 1993). 따라서 한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주제의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신춘문예 동시의 주제를 김성기(1995), 이기옥(1997), 이병식(1995) 등이 제시한 분류 기준에 기초하여 자연친화, 놀이의 즐거움, 꿈·희망·소망, 애정·그리움, 기타 등의 5개 주제면에서 분석하였다.

〈표 4〉 작가의 직업 (명, %)

교사	학생	회사원· 사업가	강사	문인	기타	계
23(53%)	9(21%)	2(5%)	5(12%)	1(2%)	3(7%)	43(100%)

신춘문예 동시 작품에 있어 가장 많은 주제는 자연 친화로서, 약 42%를 차지하고 있음이 <표 5>에 나타나 있다. 두 번째는 꿈·희망·소망으로 전체 작품의 약 20%의 비율을 나타내며, 애정·그리움과 기타는 각각 약 17%와 16%로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놀이의 즐거움을 다룬 주제는 약 5%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표 5〉 동시의 주제 (편수, %)

자연친화	놀이의 즐거움	꿈·희망 ·소망	애정· 그리움	기타	계
25(42%)	3(5%)	12(20%)	10(17%)	9(16%)	59(100%)

소재의 경우, <표 6>을 보면,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이 34편으로 59편의 작품 중 절반이 넘는 약 58%를 차지한다. 사물을 매개로 한 작품은 약 22%를 차지하며, 인간·놀이·학습·꿈의 소재는 전체 비율의 약 12%를 차지한다. 기타는 여러 가지의 주제가 복합되어 있어 분류

하기 힘든 경우, 또는 ‘숨쉬는 침성대’(김문기, 1992, 동아일보)와 같이 역사적인 창조물에 대한 상상을 노래한 경우로서 전체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동시의 소재 (편수, %)

자연·자연현상·계절	인간·놀이·학습·꿈	사물	기타	계
34(58%)	7(12%)	13(22%)	5(8%)	59(100%)

신춘문에 동시의 기능(이병식, 1995)을 심미적·현실비판·교훈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59편의 동시 중 약 89%가 감정적인 또는 감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한 심미적 동시에 포함된다. 신춘문에 동시는 주로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부모님에 대한 애정 또는 그리움, 그리고 동심 세계에 대한 희망과 꿈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신춘문에서 교훈적 기능과 현실비판적 기능은 각각 3%와 8%로 나타난다.

<표 7> 동시의 기능 (편수, %)

심미적 동시	교훈적 동시	현실비판적 동시	계
53(89%)	2(3%)	4(8%)	59(100%)

2. 신춘문에 동시의 미학적 요소

문학을 구조로 보는 것은 20세기의 주된 특징의 하나이다. 문학을 구조로 봄으로써 문학의 짜임에 대한 인식을 더욱 명료히 할 수 있고, 나아가서 문학 작품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을 유기적인 관련성에 의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학의 구조(박민수, 1998)는 그 구조를 통해 스스로의 문학성을 유지하고,

아울러 미적 가치를 구현하게 되는데, 개별 작품들이 그 구조를 통해 미적 가치를 구현하는 일, 또는 구현되는 가치의 총체를 의미 작용이라고 한다. 결국 문학 작품은 스스로의 구조를 통해 문학으로서의 미적 가치를 구현하는 총체라고 할 수 있는데, 문학에 대한 이러한 구조적 인식은 문학을 창작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

동시 문학의 미학적 요소(진선희, 1996)는 표현적 요소, 언술적 요소, 형식적 요소로 구성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신춘문에 동시의 미학적 특징을 의성·의태어의 사용과 수사법의 활용을 포함하는 표현적 요소, 동시의 자아와 시점에 따른 언술적 요소, 그리고 정형시와 자유시를 포함하는 형식적인 요소 등 3가지 면에서 살펴본다.

1) 표현적 요소

의성·의태어의 사용은 전체 작품 59편 중 42편에 83회로 <표 8>의 결과와 같다. 이는 전체 작품의 약 71%에 의성·의태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의성·의태어 중 4 음절어가 약 4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단음절어를 2 음절어로 늘려 사용한 경우는 ‘토옥’과 ‘포옥’ 2회가 있으며, 2 음절어를 3 음절어로 음절수를 늘려 리듬을 완만하게 해주어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사용한 경우는 ‘휘얼훨’ 1회가 있다. 어휘를 반복하여 쓴 경우로는, ‘철거덩 철거덩’과 같이 3 음절어를 두 번 반복하여 6 음절어로 쓴 경우가 5회, 연속되지 않은 소리를 연결시켜 음절수를 늘린 경우가 ‘철거덩 철정’으로 1회, 그리고 ‘칙칙폭폭 칙칙폭폭’과 같이 4 음절어를 반복하여 쓴 경우가 1회 있다.

의성·의태어의 활용에 있어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빈도를 살펴보면(표8 참조), 양성모음이 약 72%, 음성 모음이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양성모음이 음성모음 보다 약 44% 정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표 8〉 의성·의태어 (회수, %)

음절	의성어		의태어		의성·의태어		계
	양성 모음	음성 모음	양성 모음	음성 모음	양성 모음	음성 모음	
1음절	2	0	0	0	0	0	2(2%)
2음절	6	3	7	3	3	1	23(28%)
3음절	1	2	6	1	1	1	12(15%)
4음절	5	3	24	4	2	1	39(47%)
5음절	0	1	0	0	0	0	1(1%)
6음절	1	3	1	0	0	0	5(6%)
8음절	1	0	0	0	0	0	1(1%)
계	16(19%)	12(14%)	38(46%)	8(10%)	6(7%)	3(4%)	83(100%)

시적 비유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비유와는 다른 느낌을 준다. 시적 비유란 일상생활에서는 통용되지 않고 그 시안에서만 살아 있는 의미이다(이상섭, 1975). 감각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선명하거나 신기하던가, 풍부한 암시성에서 시적 비유의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동시에 많이 쓰이는 비유에는 직유, 은유, 의유가 있다(김준오, 1991). 신춘문에 동시에 자주 쓰이는 비유법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에 따르면 의인과 활유를 포함하는 의유의 사용이 전체 빈도의 약 51%를 차지하며, 이는 사물에 생명력을 부여함으로써 아동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한 표현이 많이 사용된 것임

〈표 9〉 수사적 표현 (회수, %)

직유	은유	의유	계
12(13%)	34(36%)	48(51%)	94(100%)

을 알 수 있다. 또한 은유적 표현은 약 36%, 직유적 표현은 13%로, 은유가 직유보다 약 3배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언술적 요소

시의 언술적 요소(박민수, 1991)는 시적 자아, 시점, 어조 등을 포함한다. 시적 자아의 유형별 빈도를 살펴보면(표10 참조), 매개자적 자아가 전체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시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적인 인물의 상태 또한 어른이 약 74%로 아동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동시의 자아가 매개자적인 위치로 나타나는 경우는 시적 자아의 형태가 전부 어른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자기표출적 자아 면에서는 동시의 자아 상태가 어른으로 나타난 15%에 비해, 아동이 24%로서, 9%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적게 나타난 관찰자적 자아의 경우는 아동, 어른이 3%로 각각 1편씩 나타났다.

〈표 10〉 시적 자아 (편수, %)

관점 상태	자기표출적 자아	관찰자적 자아	매개자적 자아	계
아동	14 (24%)	1 (1.5%)	0	15 (25.5%)
어른	9 (15%)	1 (1.5%)	34 (58%)	44 (74.5%)
계	23 (39%)	2 (3%)	34 (58%)	59 (100%)

신춘문에 동시의 시간적 시점별 빈도는 <표 11>에서와 같이 현재가 약 59%로 가장 많고, 시점과 관련 없는 무시간이 약 24%, 과거 현재 미래 시점의 혼합이 약 14%, 과거가 약 3%를 나타내며, 미래의 시점이 단독으로 나타난 작품은 없었다. 고정적 시점은 전체 빈도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이동 시점이 22%인 것에 비해, 월등히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11〉 시간적·공간적 시점 (편수, %)

시간적 시점					공간적 시점			
과거	현재	미래	혼합	무시간	계	고정	이동	계
2(3%)	35(59%)	0	8(14%)	14(24%)	59(100%)	46(78%)	13(22%)	59(100%)

신춘문에 동시의 어조에 관하여 <표 12>를 보면, 대화적 어조는 7%에 그치고 있다. 신춘문에 동시의 거의 대부분이 독백적·설명적 어조로 약 93%를 차지하고 있다.

〈표 12〉 동시의 어조 (편수, %)

대화적	독백적	계
4(7%)	55(93%)	59(100%)

3) 형식적 요소

신춘문에 동시 작품에 나타난 형식적 요소의 결과는 <표 13>과 같다. 59편의 동시 중 정형시는 2%, 김규의 '꽃씨'(1970, 동아일보) 1편 뿐이었다. 자유시의 율격을 살펴보면, 자유시 특유의 내재율이 61%로, 자유시의 외형률이 37% 나타난 것에 비해, 약 24% 정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 13〉 형식적 요소 (편수, %)

	외형율	내재율	계
정형시	1(2%)	0	1(2%)
자유시	22(37%)	36(61%)	58(98%)

IV. 논의 및 결론

1. 작가 및 주제와 기능

신춘문에 동시 59편을 대상으로 작가적 측면을 살펴본 결과, 남성 작가가 여성 작가에 비하여 1.4배 많았으며,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았고, 학력은 대학 학력 이상이 8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직업으로는 교육자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작가의 특성은 1970년대부터 2001년에 이르는 30년간의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신춘문에 동시 작가 중, 1980년대부터 여성 당선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와 사회 참여 신장에 기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중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여성의 학력 또한 높아지고, 직업과 사회 활동에 있어서도 여성이 다방면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문인 활동에 대한 동경과 욕구

및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이다. 높은 교육 수준의 여성들이, 문예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문학적 소양을 높이며 자신의 문학적 잠재능력을 전문적 사회 활동으로 현실화시키는 창구로서 신춘문예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육아와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여성으로서 아동의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아동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이상을 보다 손쉽게 그려낼 수 있다는 인식과 또한 문인 활동은 외부 기관이나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가정에서 가사와 병행할 수 있는 직업 또는 사회활동이라는 인식이, 여성으로 하여금 신춘문예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대한 관심과 습작을 도모하게 함으로서 여성이 동시 작가로서 등단하는 비율이 남성의 경우와는 상대적으로 높아져 왔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시대별로 보면, 신춘문에 동시 작가의 연령

이 4-50대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동시 작가의 첫 등단 연령이 높아진 이유는 일차적으로 시의 창작 능력에 있어서 자유분방한 표현이나 단순한 재치와 도전 정신만으로는 어렵다(이호철 외, 1990)는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0대의 젊은 작가의 참신한 감각과 문예적 기교가 아동을 위한 동시에 신선함을 더할 수도 있으나, 4-50대의 육아와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세련된 아동의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미래 지향적 이상을 문학성 짙은 시의 세계로 표현해 놓은 기교 등도 보다 원숙한 경지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되는 것이다. 또한 4-50대의 작가 등단의 경우가 증가하는 이차적 이유로써 심사 위원들이 대부분 보수적 경향을 지닌 원로들(구경미 외 16인, 1999)이기 때문에, 젊은 작가의 난해하고 실험적인 동시보다는 보수적이고 자연과 가까운 성향의 중년세대의 안정감 있는 작품을 선호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신춘문에 동시 작가의 최종 학력의 경우, 신춘문예에 응모하고 있는 지원자 중에서 교사 또는 강사 등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자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도합 86%에 이르는 바, 작가 수업 또는 문단에의 데뷔가 전문교육 또는 고등 학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감을 감지할 수 있다. 특히 교사로서 등단한 경우의 절반이 초등교사로서, 동시 또는 문학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사의 동시 응모가 많은 것은 교육현장에서 국어(읽기·쓰기·말하기) 시간에 동시교육의 감상·창작·평가 교재로써 자주 동시를 활용하는 가운데, 동시의 관련 요소에 대한 안목과 이해를 바탕으로 신춘문예 응모의 기회를 살린 것으로 이해되는 바, 대학 이상의 교육이 토대가 되었으리라 사료된다.

신춘문에 동시의 주제로는 전체적으로 심미

적 기능을 가진 자연 친화적 주제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소재 면에 있어서도 모두 실제적인 것들로 자연 현상 또는 자연적 사물이 대부분이고, 일반시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소리, 느낌, 이상 등의 추상적 개념의 소재(김희자, 1998)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자연의 질서는 꾸밈이 없고 아름다우며 가장 광범위한 소재를 함축하고 있는 바, 아동의 안정된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기옥, 1997)는 점에서 자연적 요소가 동시의 주제와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연물에만 한정된 시적 정서는 21세기의 과학과 기계 문명 속에 살아가는 현대 아동에게 오히려 자신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느낌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자연 속의 삶만을 그려낸 동시는 도시나 인공적인 삶의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아동으로 하여금 오히려 이질감을 형성하게 하며, 아동들의 흥미를 저하시키고, 정서 순화 또는 사고 심화라는 동시의 기능(서병하, 1975)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동시는 아동의 실제 세계를 미적 경험 세계로 승화 표현한 것으로서, 시적 정의가 살아 있는 다양하고 순수한 시 세계를 통하여, 전인적 인간성을 함양시켜야 하는 문학 교육의 목표(김상태 외 6인, 1995)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자연 소재 외에도 아동이 접하는 생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개발, 확대, 개방함으로써, 신춘문에 동시는 아동으로 하여금 현실 생활을 바탕으로한 상상력을 확대하고 생생한 정서적 경험을 제공하는 문학교육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아동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세계는 심미적일 뿐 아니라 사회·도덕적이며, 현실 비판적인 환경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방적이고 폭 넓은 세계이다. 과학 문명의 발달은 우주 세

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며, 기계문명의 발달은 아동들의 생활 공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현대 사회를 사는 아동은 컴퓨터를 통하여 가상 체험 및 다양한 놀이를 즐기며 인터넷을 통하여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접하고 있다. 따라서 동시를 포함한 문학교육은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적 체험과 더불어 아동의 현실적 삶의 경험을 반추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우주 정보시대를 지향한 미래세계에 대한 꿈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판단력이나 사고력이 미성숙한 아동에게 현실 세계의 아름다움과 추한 면모를 정선된 시적 언어로 제시하며, 나아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맛보게 하는 잘 다듬어진 작품을 엄선하여 소개함으로써, 동시로부터 등을 돌린 아동의 동심을 다시금 동시와 문학으로 되돌리고 아동 개인의 정신적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신춘문에 동시의 미학적 요소

동시에 있어서 시어는 아동의 이해와 공감의 범위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Benton, M., 1990). 아동의 세계를 아동이 실감할 수 있는 아동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아동의 체험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시어로서의 자격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것이든 모든 시에 사용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을 둘러싼 미추 대소(美醜 大小)의 요소들이 시적 재원으로서의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시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시인의 감수성에 의해 시적 형상화가 이루어 질 때 비로소 가능해(정춘자, 1991)진다. 즉, 언어적 표현 장치에 의해 구조화되어야만 비로소 시로

서의 문학성이 제대로 성립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문학작품으로서 시의 표현적 요소는 어느 한 두 가지의 수사법이나 이미지로 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유기적 짜임을 총괄적으로 바라볼 때 두드러지게 작품을 살리는 표현법이 있으며, 그 작품의 강력한 이미지는 몇 가지로 제한될 수 있다(진선희, 1996).

우선 신춘문에 동시 작품의 표현적 요소로서는 의성·의태어가 전체 작품의 2/3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동시 작품에 의성·의태어의 사용이 많은 이유는 감각적인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시의 세계를 구체화시키고, 시의 재미를 위하여 리듬감 있는 시어의 사용으로 시를 한결 이해하기 쉽고 가깝게 느끼도록 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시의 리듬감을 통해서 감각적인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즉, 의성·의태어의 적절한 사용으로 작품의 음악성을 살리고 아동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동시의 교육적 의의(김현희와 박상희, 1999)를 신춘문에 동시가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의성·의태어 중에서도 4 음절어가 약 절반 가량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국어에 쓰이고 있는 의성·의태어 가운데 4 음절어가 가장 많은(양향자, 1998) 까닭도 있지만, 이들을 한 행으로 처리할 경우 4 음절어가 길지도 짧지도 않고 같은 음절의 반복으로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다(유해숙, 1991). 그리고 모음을 삼입함으로써 음절을 늘리는 형태의 의성·의태어의 사용도 여러 편에 나타나고 있다. 음절을 늘리는 시어 형태의 사용은 시의 리듬을 완만하게 하고 호흡을 편안하게 하여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주기 위한 방편(오규원, 1990)으로 사용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신춘문에 동시에 나타난 의성·의태어의 모음형태를 볼 때, 신춘문에 동시의 시어들이 잘 다듬어진 표현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시어의 표현에서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에 비해 약 2.6배정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양성모음은 움직임이 작고 약한 주제들의 동작이나 모양을 나타내는 표현들로 자연스러움과 평화로움의 이미지를 나타낸다(양향자, 1998). 신춘문에 동시에서 음성모음보다 양성모음이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주제와 소재들이 대부분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아동의 꿈과 이상 또는 희망 등을 다룬 심미적인 내용으로서 양성모음의 표현이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신춘문에 동시 작품에서의 수사적 표현의 경우, 적어도 한번씩은 각 동시 작품에 쓰여질 정도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시어의 은유적 표현이 직유적 표현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이 작가의 상상력이 빚어낸 시어의 은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감수성을 키울 수 있고, 은유화된 직접적인 표현이 시어의 구체적인 감각성을 불어넣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춘문에 동시 작가들이 은유적 표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의인법과 활유적인 표현 또한 생명이 없는 것에 대해 감정과 심리를 불어넣음으로써, 객관적이고 사실적일 수밖에 없는 대상이나 소재를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것으로 바꾸어, 아동으로 하여금 시적 심상 작용이나 상상 작용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돕는다(김진우, 1998). 동시의 의인화되거나 활유화된 소재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고 쉽게 동화할 수 있으므로 아동이 동시에 흥미를 갖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바, 신춘문에 동시의 다양한 의인·활유적 표현은 긍정적 자리 매김을 할 수 있겠다.

한편 연구자는 신춘문에 동시에서 작가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독특하고 개성적인 시어가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품의 주제나 소재에 대하여 작가의 고정된 표현 양식이나 일면적 사고가 눈에 띄는 것이다. 진부하고 관례적인 의성·의태어의 사용은 아동이 작품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지루함을 느껴 동시를 멀리하게 되는 조건을 제공한다(오재길, 1995). 독자인 아동으로 하여금 동시를 통해 정서적·미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함(유창근, 1989)과 동시에, 아동이 스스로 그 시를 좋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동시 교육의 기본적인 조건 측면에서 고려할 때, 작가들의 보다 정선된 시어 구사가 요구된다. 작가들은 새롭고 경이로운 발견을 수반하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참신한 시어를 개발하고 구사함으로써, 독자인 아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신춘문에 동시의 표현적 요소를 검토한 결과, 상징적 표현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문학에서의 상징(이원희, 2000)은 연상의 힘에 의한 가시적인 물질계와 불가시적인 정신세계의 만남을 의미한다. 문학적 상징이란 심상과 관념의 결합이며, 심상이 관념을 암시적으로 환기하는 것이다. 시에서의 상징은 표기된 의미가 연상 작용에 의해 어떤 다른 것으로 대치되는 방식을 취한다. 그리하여 하나의 이미지는 그 이미지가 암시하거나 환기하는 하나의 다른 관념에 결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다리를 올라간다'라고 할 때 표기된 의미는 정신적 상승 곧 '승화'라는 관념과 결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듯 상징은 인간의 고도한 유추 능력과 해석 능력 그리고 연상 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사물이나 관념을 무한히 심화하고 확대하려는 문학적 장치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춘문에 동시 작품에서는 상징

을 사용한 동시 작품이 한 편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아동의 사고가 고도의 유추나 해석·연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작가들이 상징적 표현을 피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나 문학 감상 교육의 측면에서 아동 수준에 적합한 상징적 표현을 시도해 볼 가치가 있으리라고 본다.

문학 교육은 동시의 교육적 목적을 아동의 정서 발달과 언어 표현 신장에 둔다(김대행 외 7인, 2000). 따라서 다양한 표현 능력의 신장과 사물이나 관념을 심화시킬 수 있는 상위 인지의 발달을 위해, 수사적 표현 방법과 상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깊게 사고할 수 있는 표현들도 제시하는 등, 아동에게 다양한 동시 작품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인 비유법과 상징의 경험을 늘려야 할 것이다.

동시는 동시로서 나름의 독자적 구성 방식과 특성에 의해 성인시와 변별되는 스스로의 문학성을 드러내기도 하며, 예술의 하나로서 성인시와 동일한 미적 구성 원리에 의해 성립된다(박민수, 1991). 신춘문에 동시의 예술적 요소는 자아와 시점 및 어조의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먼저, 신춘문에 동시에서는 매개자적 자아 시점이 관찰자적 또는 자기표출적 자아 시점에 비하여 단연 우세하다. 매개자적 시각은 아동 독자에게 동시의 독특한 체험을 형상화하여 전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나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해 준다(박민수, 1991). 그러나 동시의 화자인 성인 작가가 아동의 흉내만 내고, 시의 내용이 어른 매개자의 정서를 조장하거나, 어른 매개자의 일방적인 정서를 전달하는 경우는, 동시의 문학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교육적 기능에 역효과를 초래한다. 신춘문에 동시 중 대동여지도(김동국, 1987), 숨

쉬는 침성대(김문기, 1992), 침성대(조동화, 1983) 등은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문화적, 민족적 이미지와 사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화자의 시점만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민족문화를 소재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나 사상에 있어서 소재의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 계승과 창조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문학 교육의 목표를 고려할 때(김대행 외 7인, 2000), 작가의 주체적 언술이 요구되는 바이다.

신춘문에 동시의 시간적 시점은 현재형이 전체 비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신춘문에 작가들이 현재 상황에서 사물이나 사건을 관조하는 자세를 중시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신춘문에 동시의 공간적 시점에 있어서는 고정적 시점이 월등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고정적 시점은 사물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묘사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소재의 이미지를 보다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게 해준다(김진우, 1988). 반면 또 다른 공간적 시점으로서 이동적 시점은 소재에 대한 아동의 자유분방한 정조를 잘 드러낼 수 있고 관조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아동의 시점을 넓히고 아동이 보다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사고를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고정적 시점의 작품과 함께 미래지향적이고, 이동적 시점의 동시가 창작·소개됨으로써 보다 풍요로운 문학감상 및 평가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신춘문에 동시의 어조 측면에서는 대화체의 형식보다 독자에게 동시의 내용을 직접 이야기하여 주는 독백체의 형식이 주를 형성하고 있다. 시란 기본적으로 작가 개인의 내면세계를 글로 표현한 것으로서, 상호관계를 전제로 한 대화보다 독백 형식의 표현이 많은 것은 자연

스러운 현상이라고 이해된다. 한편 최근 문답법이나 대화법이 교육방법으로서 새롭게 그 의미를 인정받고 있는 바, 교육현장에서 아동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형성한 문학적 개념이나 이미지를 동시 작법에 응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정갑숙(1999)의 '나무와 새'와 같은 대화체가 포함된 형식의 신춘문에 동시를 소개하여, 미리 감상하고 평가해 보며 동시의 또 다른 언술적 표현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아동의 대화체 동시 창작을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춘문에 동시를 형식적인 요소 측면에서 살펴보면, 구체적이고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정형시보다는, 작가의 심상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시(양향자, 1998)가 압도적으로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가의 생각 또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한 자유시들은 그 형식이 단순할 뿐만 아니라 작가 스스로 틀에 구속되지 않고

동시 작품을 창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도 훨씬 이해하기 쉽다. 또한 자유시 형식의 동시는 시의 내용과 더불어 작품의 내부에 리듬과 음률이 살아 있기 때문에 아동이 다른 사람의 꿈과 경험에 대해 보다 친근하게 감정이입을 하여 그들의 감정과 생각 등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정형시(오규원, 1990)도 두운, 각운, 압운 등 규칙적인 운율의 묘미와 시어 각각이 지닌 정형화된 음절수에서 오는 언어의 안정된 호흡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시 형식이다.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 교육 현장에서는 정형시·자유시 등 다양한 형식의 동시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동시 작가들의 다양한 창작 형태를 촉구함과 동시에 시를 접하는 아동과 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동시 활용에 있어서 아동의 세계와 삶이 녹아 있는 시문학의 미학적 요소가 표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강만길(1994). 고쳐 쓴 한국 근대사. 서울 : 창작과 비평사, 174-179.
- 곽인우(1990). 문학의 축제, 신춘문예. 민족지성, 47.
- 구경미 외 16인(1999). 1999 신춘문예. 서울 : 프레스 21.
- 김대행 외 7인(2000). 문학교육원론.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상태 외 6인(1995). 문학의 이해. 서울 : 학연사.
- 김영기(1995). 어린이의 정서 함양을 위한 동시 감상 지도. 교육제주, 89, 59-62.
- 김윤식(1997). 평-'97년도 신춘문예 소설의 위상. 현대문학, 150, 369-375.
- 김윤식(1989). 우리 시대 시적 상상력 : '89 신춘문예 당선 작품을 분석한다. 문학사상, 196, 180-189.
- 김준오(1991). 시론. 서울 : 삼지원.
- 김진우(1988). 시와 언어. 서울 : 한국문화사.
- 김한식(1997). 신춘문예의 계절, 그 화려한 설레임 : 90년대 신춘문예 당선 소설 분석. 문화예술, 220, 64-72.
- 김현희, 박상희(1999). 유아문학교육. 서울 : 학지사.
- 김희자(1998). 초등학교 어린이의 동시 지도 연구.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철(1988). 신춘문예 당선 시 연구 :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논문집(서울여대 인문사회과학 편), 3, 31-50.
- 노상규(1990). 신춘문예 작품의 사회적 선택에 관한 연구 :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류보선(1999). 절망의 정조와 절망의 기원 : 1999년도 신춘문에 소설 당선작에 대한 단상. 문학사상, 316, 96-102.
- 문중욱(1995). 최근 신춘문에 소설 작품에 나타난 어휘 빈도 수 조사 연구 : 1993년도 발표 7작품의 용어 어휘 사용 빈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민수(1991). 동시의 시적 자아와 시점에 관한 일 연구. 춘천교대교육연구, 9, 21-37.
- 박민수(1998). 아동문학의 시학. 춘천교육대학교 출판부.
- 박화목(1993). 아동문학개론. 서울 : 민문고.
- 배문성(1991). 신춘문에 제도 무용론. 말, 55, 212-215.
- 배봉기(1998). 희곡의 위기, 위기의 연극 : '98 신춘문에 당선작 연속 공연을 계기로. 문학과 의식, 40, 398-405.
- 서태수(1998). 현대 시조시의 사적(史的) 연구 : 신춘문에 당선 작품을 중심으로. 시시조와 비평, 79, 48-63.
- 신덕룡(1990). 문학 : 세시풍속으로서의 신춘문에. 문화예술, 127, 46-47.
- 신익호(1979). 동시 소고 : 현대 동시의 방향에 대하여. 논문집(육군제삼사관학교 편), 9, 20-38.
- 양향자(1998). 초등학교 동시 교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규원(1990). 현대시작법. 서울 : 문학과 지성사.
- 오재길(1995).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시의 특성 및 교육적 시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경환(1979). 한국 현대동시론. 서울 : 배영사.
- 이경수(2000). 시와 비시(非時)와의 거리 : 치열한 도전 정신과 패기가 아쉬워. 문학사상, 328, 168-175.
- 이기욱(1998). 초등학교 동시 교육의 개선 방안 연구 : 제6차 교육과정의 교사용 지도서 수록 동시를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명원(2000). 환부 없는 시대의 통증 : 타인에 대한 따뜻한 연민의 태도에 주목. 문학사상, 328, 176-182.
- 이병곤(1992). 한국 Sports 문학에 관한 고찰 : Sport 신춘문에 당선작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병식(1995). 국민학교 교과서에 실린 동시의 분석적 연구. 상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승원(1999). 안정된 시작법과 균형감각 : 생활의 단면과 자연의 청정함을 보여 준 두 가지 경향. 문학사상, 316, 86-95.
- 이승훈(1989). 대상 서술의 시적 한계 : '89 신춘문에 당선 작품을 분석한다. 문학사상, 196, 190-199.
- 이오덕(1990). 시정신과 유희 정신. 서울 : 창작과 비평사.
- 이원희(2000). 동시에 있어서 비유와 상징의 표현에 관한 연구. 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재철(1989). 세계아동문학대사전. 서울 : 계몽사.
- 이탄(1989).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 신춘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 민족과 문학, 1, 267-272.
- 이호철 외 43인(1990). 신춘문에 특감. 서울 : 정민.
- 전영태(1997). 평-신춘문에 당선 소설의 영원성을 위하여. 문학사상, 292, 98-106.
- 정규용(1989). 신춘문에, 있어야 하는가 : 제도적 문제점과 존재에 대하여. 민족과 문학, 1, 261-266.
- 정호용(1998). 평-사막 속에 갇힌 정신들 : 1998년 신춘문에 당선 소설의 세계. 문학과 의식, 39, 375-380.
- 진선희(1995). 동시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수록 작품에 관한 연구 : 제4차부터 제6차까지의 국민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진선희(1996). 제5차 교육과정기 수록 동시 분석. 청람어문학, 15, 183-206.
- 진이정(1991). '시 읽기'의 피로움 : '91 신춘문에 당선 시 읽기. 현대시학, 263, 245-253.
- 최문식(1988). 문학교육론. 서울 : 집문당.

한국아동문학가협회 편(1975). 동시, 그 시론과 문제
성. 서울 : 신진출판사.

현길언 외 2인(1996). 장담-우리 문학의 현장 2. 현대
문학, 496, 36-55.

홍신선 외 2인(1996). 장담-우리 문학의 현장 3. 현대
문학, 497, 36-58.

황병하(1992). 적극적인 실험 정신의 결여와 몇 가지

가능성의 지평 : 1992년도 6대 중앙지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작들을 읽고. 문학정신, 64, 163-
168.

Benton, M.(1990). Importance of Poetry in Children's
Learning. ED390292.

Mills, B. S.(1980). Teaching Poetry in Elementary
School. ED172261.